

6·25전쟁이 중국외교에 미친 영향 (1949-1978)

李 玉 貞*

1. 들어가는 말
2. 세계 혁명의 “音標”와 “盲區”
3. 냉전 중의 열전
4. 결론에 대신해서 : 6·25전쟁이 중국외교에 미친 영향

1. 들어가는 말

1978년은 중국공산당의 사회주의 건설 총 노선처럼 중화인민공화국의 외교노선에서 매우 중요한 해였다. 이 해에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 11계 3중전회가 극히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중국은 계급 투쟁 노선을 버리고, 경제건설 중심의 총 노선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사회의 형세로 보나, 국가실력으로 보나 경천동지의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를 향해 개방한 새로운 중국을 보고

있다. 평화와 발전을 기조로 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신중국은 적극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다. 胡錦濤가 세우려는 “조화로운 사회”, “조화로운 세계”, “조화로운 지역”이라는 이론에 근거하여 중국은 자신의 대외정책 방침뿐만 아니라 좋은 외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외교공간을 확장하고 있다.

이 논문의 원고를 마칠 때 필자는 남북한 정상이 곧 만나게 되고,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38선을 걸어서 넘을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평양에 도착하면 그는 ‘아리랑’을 관람할 것이며, 10월 3일 밤에는 북한의 성대한 접대에 대해서 한국을 상징하는 ‘대장금’으로 감사를 표시할 것이라고 전한다.¹⁾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의 모든 이들이 모두 이 소식으로 인해 아름답고 충만한 기대를 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정세에서 지난 일을 회상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많은 중대한 역사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다. 6·25전쟁도 그 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전문적인 한 문제를 탐구하려는 것이 아니다. 즉 크게는 전쟁의 성격, 냉전 배경하의 자유, 공산 두 진영의 대결과 같은 문제들,²⁾ 자세하게는 6·25전쟁에 대한 스탈린, 김일성, 毛澤東의 입장과 역할, 그리고 이 전쟁에서 미국과 북한 중 어느 쪽이 승리했는가라는 등과 같은 문제³⁾들은 거론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전쟁과 중국 외교의 방향변화와의 관계, 특히 중·미, 중·소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생각을 언급하고자 한다.

1) 『環球時報』, 2007년10월1일, 3면.

2) 章百家, 牛軍 合編, 『冷戰與中國』(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02年)과 牛大勇, 沈志華 合編, 『冷戰與中國周邊關係』(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04年), 두 책에 이 주제에 관한 전문 연구논문 37편이 수록되어 있다.

3) 이 문제에 관한 중국과 외국 학자의 저작이 이미 매우 많이 있기 때문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劉金質, 『冷戰史』(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03年), 第3卷; 徐焰, 『第一次較量』(北京: 中國廣播電視出版社, 1990年); 林利民, 『遏制中國—朝鮮戰爭與中美關係』(北京: 時事出版社, 2000年); 謝顯益主編, 『中國外交史』(中華人民共和國時期1949-1979)(河南: 人民出版社); 陶文釗主編, 『美國對華政策』(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03年), 第1, 第2卷; 『杜魯門回憶錄』(北京: 東方出版社, 2007年), 上·下卷.

* 중국 社會科學院 近代史 研究所 연구원.

2. 세계 혁명의 “音標”와 “盲區”

6·25전쟁의 전화가 압록강변까지 번져 직접 중국의 안전을 위협했을 때, 막 탄생한 중화인민공화국은 “抗美援朝, 保家衛國(미국에 저항하여 북한을 원조하고, 가정과 국가를 지킨다)”이라는 구호 아래 북한에 지원군을 보내 작전을 펼쳤다. 중국공산당은 김일성을 수령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형제당으로 삼고 있던 북한노동당을 지지했던 것이다. 이것은 이미 논쟁할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여덟자(抗美援朝, 保家衛國)의 개괄적인 구호 외에 필자는 중국의 한반도 출병에는 또 다른 더 깊은 배경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중국공산당의 정책 중에서 깊이 가려져 있는 세계혁명의 요소,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요소, 즉 이데올로기적 요소이다. 이들의 배경은 멀리는 1919년 코민테른의 창설, 국제 사회주의운동의 역사에까지 닿아있다. 가깝게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형세—특히 냉전과 관련이 있다.

먼저 멀리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논의를 시작하여 보자. 필자는 중국공산당 정책 중의 강력한 부호인 “세계혁명”을 간략하게 회고해 보려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1919년 창설된 코민테른은 소련 혁명이론을 경전으로 받들고, 세계 피압박민족, 식민지·半植民地 인민과 자본주의 국가의 프롤레타리아를 해방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소련식의 혁명 방법을 채택해서 전 세계의 자본주의를 철저히 소멸시키고, 세계의 제국주의를 타도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레닌의 이론에 따라 세계의 자본주의는 이미 부패해서 몰락, 파탄의 단계에 직면해 있다고 본 것이다.

“제국주의 타도”, “자본주의에 대한 공격”, “자본주의의 소멸” 등의 구호는 소련 10월 혁명이 내건 기치였다. 코민테른은 각종 수단을 통해서 이 구호를 전 세계에 전파하려고 했다. 일찍이 1920년 코민테른 제2차 대표대

회에서 집행위원회 주석인 지노비예프는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에게 세계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승리는 “새가 (날기 위해서) 날개를 터는 소리”처럼 분명히 들을 수 있다고 아주 자신감 있게 말했다.⁴⁾ “폭력혁명”은 가장 적극적인 단어가 되었다. 이것과 훗날의 냉전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며, 양자는 국제적 수준에서 공산주의와 제국주의가 “너 죽고 나 살기” 식의 투쟁을 벌인 것이다.

코민테른 제2차 대표대회에서 통과된 ‘코민테른 가입조건’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1922년부터 코민테른의 지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념적으로도 코민테른의 이론을 받아들였다. 같은 해에 북한, 일본, 인도네시아 등의 혁명가들도 코민테른이 조직, 개최한 극동 민족 대표대회에 다 함께 참가했다. 이때부터 중국공산당은 국제 공산주의운동의 무대에 올라서게 되었다. 중국공산당과 코민테른의 관계는 매우 큰 주제여서 연구 저작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래서 필자는 한 가지 점만 이야기 하도록 하겠다. 즉 중국공산당과 코민테른의 관계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1921년 중국공산당 창립대회 전후 중국공산당이 사용한 경비, 1922년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嚮導週報』의 창간 및 발행, 그리고 그 후 중국공산당의 활동은 모두 코민테른의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이다.⁵⁾

극동의 이 대회는 코민테른 제2차 대표대회에서 나온 레닌의 ‘식민지·반식민지 혁명이론’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즉 이 국가들과 지역의 인민들은 자본주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혁명의 승리를 일구어낸 소련과 같은 선진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공산주의를 거쳐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을 건립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이다. 코민테른은 바로 워싱턴회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거행된 것이었다. 회의에서 나온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주석인 지노비예프의 주제 발표와 대회에서 통과된 ‘워싱턴 회의의 총 결산’이라는 결의가

4) 『共產國際第2次代表大會速記記錄』, (莫斯科:黨務出版社, 1934年), 10쪽.

5) 俄羅斯國家社會政治歷史檔案館, 全宗 495, 目錄 154, 案卷 102, 25쪽;李玉貞主編, 『馬林與第1次國共合作』(北京:光明日報出版社, 1989年), 88~89쪽, 150~151쪽.

이 문제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회의의 요지는 표면적으로 극동인민들을 동원하여 혁명을 진행시키자는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국가들의 인민들을 소련 주위에 단결시켜서 미국을 위시한 세계 제국주의에 대항하고, 극동을 적화하여, 제국주의 세력을 극동에서 쫓아내기 위한 것이었다.⁶⁾

이 대회가 중국에 미친 영향은 결코 단선적인 “鼓舞”가 아니라 다방면에 걸친 것이었다. 중국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점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다. 간단하게 “사람에 따라 다르다(因人而異)”고 개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국민당 대표 張秋白은 소련식 혁명 노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⁷⁾ 상당수의 중국공산당 인사들이나 중국공산당 사학자들은 이 회의의 역할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면서 한 단면만 보았다. 이것은 10월 혁명에 대한 이해의 정도 및 견해와 관련이 있다. 毛澤東은 “10월 혁명의 포성이 우리에게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가져다주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보면, 10월 혁명과 당시 소련의 정책에 대한 중국공산당 당원들의 이해는 매우 얕았고, 이 시기 毛澤東도 이상적으로 이해한 성향이 농후했다.

1950년대 초 毛澤東이 중국 ‘지원군’을 파견하여 “抗美援朝”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말할 때, 여기에 거론된 “抗美援朝” 혹은 제국주의에 저항하자는 이념은 일찍이 10월 혁명 후에 명확해진 개념이다. 그 시기 毛澤東은 무정부주의나 러셀의 온건한 민족주의론 등을 모두 실행 불가능한 이상으로 판단하였고, “격렬한 방법의 공산주의, 말하자면 이른바 勞農主義, 계급독재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고로, 당연히 이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⁸⁾

6) 이 대회의 문건은 1922년 페트르크 부르크, 코민테른 집행위원회가 출판한 『遠東革命組織第1次代表大會』(文集)(Первый съезд революцио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борник : The First Congress of the Toilers of the Far East, Originally Published in Petrograd in 1922, Reprinted in 1970 by Hammersmith Bookshop Limited.

7) 張의 상황에 대해서는 러시아 국가 사회정치역사 당안관, 全宗 495, 目錄 154, 案卷 166, 7~11쪽을 보라.

특히 1920년 3월 이후 소련의 제1차 대중국선언이 중국에 전해진 뒤, 그 선언이 제정 러시아가 중국과 맺은 모든 대중국 불평등조약을 포기한다는 미증유의 선포였기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은 소련정부에 무한한 희망을 걸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소련의 외교정책이 사실상 제정 러시아 짜르 정책의 연장선에 있었다는 점을 결코 알지 못했다. 1921년 소련은 백군의 운게른 스테른베르그의 잔여부대를 추격 토벌하기 위해서 중국의 영토인 외몽골에 진입했는데, 그 후에 수립한 몽골인민공화국이 명확한 예증이다.

그런데 소련이 과거 짜르 정권이 누리왔던 중국내의 각종 이권을 포기하고 그에 대한 주권이 중국에 있다고 선언한 승인에 대해 열렬히 환영한 중국인들의 환호성이 아직 식지 않은 시점인 1922년 8월, 스탈린은 1919년의 이 대중국선언을 부정했는데, 어찌 되었든 이 선언은 소련이 취해야 할 대중국정책의 근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⁹⁾

이때 중국공산당은 소련이 1919년 대중국선언 중의 인정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 차려야 했었다. 그러나 이제 막 창건한지 얼마 되지 않던 중국공산당은 이러한 세세한 사정을 몰랐다. 북경정부가 소련정부와 소련군의 외몽골 철병을 전제로 다시 국교재개 담판을 벌였을 때, 중국공산당 기관지에는 심지어 소련의 입장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었다. 중국공산당은 국가와 민족의 이익에 미치는 이 같은 중대한 문제를 두고 몽상을 가졌다. 즉 소련을 선진적인 프롤레타리아가 지배하는 국가로 인식하거나, “전세계 피압박 민족을 해방시키는大本영”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초기 중국공산당의 유력한 지도자 가운데 한사람인 張國燾는 북경정부가 소련의 행위를 “울란바토르 점령”이라거나 “경제침략”이라고 비판한 관점에 대해 반박하는 비난적인 글을 썼다. 그는 “러시아의 의용행위를 찬양”하면서 외몽골로 하여금 중국에 남게 해 계속 “매국”적인 북경정부와 “중국 군벌의 식민지”로 남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¹⁰⁾

8) 『新民學會會務報告』, 第2號, 中國人民解放軍政治學院編, 『中共黨史參考資料』, 第1卷, 513쪽.

9) 李玉貞 翻譯, 『聯共·共產國際與中國』(臺北: 東大圖書公司, 1997年), 第30號 문건을 보라.

소련 외교 중에 “세계혁명”, “국제주의” 혹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라는 단어는 확실히 적지 않은 유혹과 감화력을 낳았다. 소련으로 건너간 중국 노동자들 일부와 1921년 소련 주재 중국사회당의 당수인 江亢虎는 심지어 중국의 新疆省을 소련에 넘겨주자고 건의한 적도 있다. 그들은 이렇게 하면 바로 사회주의혁명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¹¹⁾

위 사례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백히 말해준다. 즉 이데올로기가 지배함에 따라 소련의 지도자는 소위 선진적인 이데올로기를 국가간 관계의 중심에 두었으며, 이데올로기를 국가간의 외교에 이용한 것이 당시 사회주의 진영으로부터 찬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1) 역사상 하나의 분명한 “盲區”

사실상 이런 류의 언설 이면에는 확실히 사용자 혹은 강조자의 국가이익이 감추어져 있다. 이러한 수법은 중국의 이익에 직접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1929년 중·소간에 중동철로 충돌이 발생했을 때 중국 국민정부는 東北지역의 장병들에게 “국가와 민족을 지키고, 맡은 바 직책을 다할 것이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을 발양하자”고 격려하고, 孫科, 吳鐵城을 東北에 파견하여 그들을 위로했다.¹²⁾

중국공산당은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의 지시를 받들어서 “소련 보위”와 자산계급-지주를 대표하는 반동적인 중국국민당 정부를 반대하자는 구호를 내걸었다. 그리고 모스크바로부터 50명의 중국간부를 북만주와 중동철로의 남만주 지선 일대에 보내 소련에 대해 작전을 펴고 있던 중국군대를 와해

10) (張)國燾, 『還是贊助新蒙古』, 『嚮導週報』, 第8期(1922年11月2日), 66쪽.

11) 북경정부가 江의 이 계획을 알았는지 그 여부를 설명해주는 사료는 아직 없다. 이 건의는 당시 모스크바에 있던 중국사회당 당수인 江亢虎로부터 제출된 것이다.

12) 中國國民黨, 『中央執行委員會慰勞東北前敵將士書』(1929年11月), 『革命文獻』, 第9輯, 1407쪽.

시켰다. 그런 뒤 무장해제한 중국군의 무기로 중국공산당이 조직한 유격대를 무장시켜 소련군에 대치한 중국사병을 후퇴시키고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격려했다. 외교적으로도 중국공산당은 소련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당 대표를 선정해 소련에까지 파견하여 10월혁명 성공의 경축활동에 참여했다.¹³⁾ 중국공산당의 행보는 마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을 실시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국가 이익은 명백히 위협을 받았고, 오히려 적대국을 지켜준 꼴이 되었다. 이는 보통사람이라면 생각해 낼 수 없는 상식을 벗어난 것이었다.

소련과의 이념적 일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20세기 30년대 말기 세계가 반파시즘전쟁이 매우 곤고한 시기에 진입했을 때, 스탈린은 히틀러와 독·소 중립조약을 체결했다. 이것은 소련이 침략자인 일본과 피침략자 지위에 처해 있던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라고 蔣介石은 예민하게 받아들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 반파시스트 여론은 들끓었다. 그러나 毛澤東은 “소련의 이익과 인류이익의 일치”라는 글을 써서 소련의 입장을 옹호했다.¹⁴⁾ 그런데 소련은 중국에 대해서 어떠한가?

1945년에 이르자 스탈린은 외몽골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외몽골을 떼어내 주는 것이 실로 유리한 것”이라고 거리낌 없이 공언했다. 심지어 그는 중국 대표인 蔣經國 등에게 아예 “소련은 외몽골의 영토에서 당연히 자위의 법률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소련은 장차 극동 전체를 상실할 것”이라고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 보였다.¹⁵⁾ 그러나 蔣經國은 그들과 끝까지 논쟁을 벌였다. 즉 외몽골을 중국에서 떼어낼 수 없으며, 7~8년에

13) 『伊·阿·雷里斯基致中共中央政治局的信』(1929年10月3日); 스탈린이 서명한 『聯共(布)中央委員會政治局第102(特字100號)會議記錄(1929年 10月 9日)』, 러시아 사회과학원 극동연구소,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동방학과 合編, 『聯共(布)·共產國際與中國蘇維埃運動(1927~1931)』, (莫斯科: 1999年), 607~614쪽, 616~617쪽.

14) 『毛澤東選集』第2卷, 583~591쪽.

15) 『斯大林統帥與宋子文院長第2次談會記錄』, 秦孝儀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 初編(對日抗戰時期): 『戰時外交』(二) (臺北: 1981年), 579쪽.

결친 “항전의 본 뜻”은 바로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완정을 말하는 것이고, 중국국민당은 “국토를 팔아먹은 것”으로 인해 중국국민들에게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사리에 맞게 논박했다.

이에 대해 스탈린은 오히려 “오늘은 결코 우리가 요구해서가 아니고 당신들이 요구해서 우리가 돕는 것이니, 만약 당신의 나라가 힘이 있으면 혼자서 일본을 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요구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당신은 그런 힘도 없으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바로 허튼 소리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반박했다.¹⁶⁾ 이것은 소위 “사심이 없는 원조,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라는 가면”을 철저히 던져버린 것이다. “국가이익”이라는 음표는 매우 분명하고 강렬했다.

사실상 맹우나 형제당을 말하기보다, 외교에서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으며, 국가이익만이 영원하다”는 처칠의 말을 인용하는 게 낫다.

(2) 북한 출병 결정 중의 이데올로기적 요인

상술한 역사적인 사건들은 중국공산당이 국가대권을 장악하기 전에 전개된 것이다. 그것은 중국공산당이 당을 확대하기 위하여 택한 갖가지 일시적인 대책들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분명 부분적으로 중국공산당이 지원군을 입북 전쟁에 나서게 한 사상적 연원과 배경이었다.

그런 점에서 중국공산당이 국공 결전에서 대세가 기울어졌을 때 제시한 외교방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949년 6월 30일 毛澤東은 ‘인민민주 독재를 논한다’라는 글에서 소련에 “기울어지겠다”는 이른바 一邊倒라는 외교방침을 제시했다. 나중에 그는 소련의 원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제관계보다 꼭 두 배가 많은 이자를 주고 소련이 제공하는 차관을 받아들였다.

16) 蔣經國, 『風雨中的寧靜』, 67쪽.

소련정부의 미코얀은 2월 毛澤東과 회견했을 때, 소련은 과거 중국국민당과 체결한 旅順, 大連문제 관련 조약은 불평등조약이니 취소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毛澤東의 표현은 놀랄만한 것이었다. 그는 소련측의 조약 취소 언급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중국공산당은 “이 조약을 승인”한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명했다.¹⁷⁾

하나의 정당으로서 중국공산당은 3억 달러에 달하는 차관을 얻었다. 스탈린 자신도 “양당 간의 차관은 역사상 최초”라고 인정했다. 차관의 이자에 관해 논의하면서 소련측은 연리 1%로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毛澤東은 이자를 배로 높여서 연 2%로 하자고 강력하게 자신의 의사를 견지했다.¹⁸⁾ 이 점은 오늘날에 와서도 여전히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이 모든 일들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소련 간의 우호관계를 유지시킨 사전 대가였다. 사실상 이처럼 높은 이자는 전 중국 인민들의 머리 위에 가해지는 것이다. 수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빈약한 중화인민공화국으로서 미화 3억 달러에 대해 두 배의 이자인 2%를 지불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었다.

1949년, 전국의 공업 총 생산 수치는 인민폐 140억 위안이었다. 이 중 중공업은 37억뿐이었다. 농업상황은 더욱 낙관적이 못해 인력, 농경, 축산, 농기구, 비료 등도 많이 부족했다. 식량 총 생산량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전 최고를 기록했던 해보다 25%나 감소했으며, 경제작물인 면화 생산량도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실업문제도 심각했다. 신중국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공업생산의 회복, 경제발전, 인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있었다.

중국은 평화로운 주변 환경이 필요했다. 그러나 인접국 북한의 상황은 중국이 공화국 성립 후에 바로 경제건설에 뛰어들지 못하게 만들었다. 1~2년 전에 북위 38도선 남북에 두 개의 국가, 두 개의 정권, 두 종류의 체도가 출현하였기 때문에 냉전 중의 38도선은 국경 아닌 국경선이 되어버렸다. 몇 년 전, 반파시스트 전쟁에서 동맹국이었던 미국과 소련 사이에 이미 맹

17) A. M. 列多夫斯基, 『斯大林與中國的命運』(事件見證的文件), (莫斯科: 1999年), 100쪽.

18) 위의 글, 106쪽.

방의 흔적은 사라졌고, 이 국가들은 국제사회에서 대립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었다. 한반도 남쪽의 대한민국과 북쪽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이에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발생해 마침내 전쟁이 폭발했다. 전쟁의 불길 이 압록강에 이르렀을 때 중국은 가정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킨다는 이른바 ‘保家衛國’을 위해서 지원군을 파견했다. 중국은 부득불 경제를 전시상태로 바꾸었다.

毛澤東은 북한 출병을 결정했을 때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배제할 수 없었던 게 분명했다. 이 책략은 그가 상술한 盲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원래 1920년 코민테른 이론이 말한 바 있고, 또 그 후에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모범으로 받아들여진 『聯共(布)黨史簡明教程』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 “비자본주의 발전의 길”은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 면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시기의 중국은 인민민주독재를 견고히 하고자 했는데, 중국공산당의 영도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로 탁상공론이었다. 따라서 신중국의 국가이익과 국가안전 문제는 더 이상 논하지도 못했다. 사회주의 盟友와 “대가정” 중의 형제를 지지하는 것이 중국이 국제주의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가운데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자연히 낮게 평가할 수가 없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으로 중국공산당의 영도는 蔣介石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의미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했기에 毛澤東이 득의양양했다는 점이다. 만약 당시 중국이 소련의 혁명노선을 본보기로 삼았다면 스탈린의 일련의 행동은 毛澤東으로 하여금 이 盲區에 더 오래 머무르게 했을 수 있다. 스탈린은 중국혁명의 성공경험과 이 경험을 장차 아시아 각국 공산당으로 강력하게 확대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심지어 그는 중국의 경험을 절대화해서 각국의 구체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본, 인도 등의 공산당원들에게 중국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제국주의와 각국 반동파에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전개하도록 명확하게 “지시”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 냉전정책의 자극을 받아서 폭력혁명의 기치는 스탈린에 의해 다시 일어났다. 그는 아시아에서 발생한 혁명에 기대어서 미국의 세력범위를 잠식하고, 이 지역을 장악하고 “적화”시켜서 미국제국주의와 대적하기를 희망했던 것이다.¹⁹⁾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은 미국과 능히 대적할 수 있었는가? 이데올로기적 요소는 毛澤東으로 하여금 시종 실상에서 벗어난 세계정세 평가를 내리게 만들었다. 이것은 곧 자본주의의 세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레닌이 제1차 세계대전 전후 제국주의는 이미 부패해서 사망 직전의 단계에 진입했다는 결론을 내린 반면, 스탈린은 제2차 세계대전이 지나서도 여전히 “경제위기는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결과”이며, “경제위기를 없애려면, 반드시 자본주의를 소멸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²⁰⁾ 중화인민공화국에서도 毛澤東이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해서 막 서산에 지는 해라든가, 목숨이 간들간들 하다는 유명한 논평을 내린 바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자본주의에 대해 공격하고, 자본주의를 소멸시키자는 구호는 거의 30년간의 시간 속에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나 정치영역에서 주된 가치였었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미 제국주의와 기타 국가의 침략군을 소멸시켜 한반도를 “온통 붉게” 만드는 것은 당연한 목표였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매우 우렁차고 迷惑된 구호였다. 그래서 이를 실천하는 과정 중에 “시대를 초월하거나 혹은 현실에서 가능한 것보다 더 높은 목표”가 나타났던 것이다.²¹⁾

19) 孫耀文, 『共產黨情報局：一個特殊的國際機構』(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0年), 314~321쪽을 참조하라.

20) 『斯大林全集』(北京：人民出版社, 1955年), 第12卷, 213~215쪽.

21) 牛軍, 『1962年：中國對外政策‘左轉’的前夜』, 牛大勇, 沈志華合編, 『冷戰與中國周邊關係』, 558쪽.

3. 냉전 중의 열전

미국인 버나드 바로크(伯納德 巴魯克)는 1947년 4월 16일의 1차 연설 중에 “냉전”이라는 견해를 제기해서, 소련의 “첫 번째” 적인 미 제국주의 외교정책의 전용 명사가 되었다. 그것은 다음 같은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자본주의와 소련식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충돌과 투쟁, 경제와 정치제도 면에서 그것은 소련식 일당독재라는 것, 고도로 집중된 계획경제와 미국의 자유자본주의 경제제도에 상응하는 정치제도와와의 투쟁, 미국 및 미국의 맹방과 소련 및 소련 맹방간의 군사 대결 및 이데올로기의 심각한 대립과 투쟁 등이다.

냉전의 쌍방은 각각 소련과 미국을 군사 지휘관으로 삼았다. 주의할 것은 그들이 군사실력을 배경으로, 이데올로기를 주된 무기로 삼아서 상호 비방하면서 지정학적 우세를 쟁탈하기 위해서 투쟁하였다는 점이다. 냉전의 쌍방은 모두 이데올로기를 이용해서 각자 대내외 정책의 진정한 목적과 요구를 감추었다. 미소의 이데올로기 투쟁은 그들이 쟁탈하려는 전략적인 우세나 이익과 결합해서 더 강한 공격성과 기만성을 갖추게 되었다.²²⁾

1947년 3월 12일,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 의회 연설에서 각 민족은 두 가지 생활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정책은 바로 “각 국가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압력을 기도하거나 소수파가 무장으로 인민에게 노예 같은 사역을 시키는 것에 대해 반항하는 행위를 미국이 원조”하는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 말은 타국에 대한 강한 간섭과 냉전의 색채를 띠고 있다. 이것은 곧 앞으로 어떤 국가라도 공산주의의 위협을 받게 되면 미국은 그 곳 “인민의 자유”를 원조할 수 있는 십자군이 되어 일종의 중생을 구제한다는 소위 트루먼주의라고 일컬어져 왔다.

이 트루먼주의는 그 후 20년간 미국의 대외정책 기초를 확정했다. 전후 서구에서는 매우 격심한 경제위기가 닥쳤다. 그래서 신임 국무장관인 조지 마샬은 이를 위해서 유럽에 대량 원조를 제공하는 계획을 제정했다. 유럽 부흥계획-마샬계획의 정식 명칭-에 따라 유럽의 16개국들에게 132억 달러의 차관과 물건을 제공했다.

마샬계획으로 원조를 받은 국가에서는 위력이 매우 빠르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소련과 서방 간의 관계에 위기를 불러일으켰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은 동유럽의 넓은 땅을 통제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의 “원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강렬한 토벌을 야기 시켰으며, 냉전은 심화되어 갔다. 동시에 조직 면에서 소련도 약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했다. 1948년 봄이 되자 유럽국가의 정치적 향방은 매우 분명해졌다. 그들은 서로 대립했으며,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 이익 면에서 일부 국가는 미국으로 기울었고, 다른 일부 국가는 소련에 의지했다.

1947년 9월, 마샬계획에 대한 대응으로서 소련을 우두머리로 한 공산당과 노동당 정보국이 창립되었다. 이것은 코민테른이 없는 상황에서 탄생한, 실질적으로 코민테른과 같은 공산당 국제기구였다. 이 기구는 선전, 선동을 위주로 동유럽 공산당이 권력을 장악한 국가들이 마치 과거에 코민테른에 복종했듯이 계속 모스크바에 복종하도록 했다. 소련을 선전하는 길이 진정한 공산주의로 통하는 유일하고 정확한 길이며, 나머지는 모두 수정주의적이거나 반소적인 반동의 길이라고 생각한 것은 말할 나위 없다. 세계혁명을 고취하는 것이 예전처럼 이 정보국의 종지였다.

미·소의 투쟁은 사실상 알타체제를 무너뜨렸다. 양자는 동맹국에서 냉전의 적수로 변해 있었다. 패전국인 독일은 지난날 맹방이었던 미국과 소련간의 쟁탈 대상이 되었다. 소련은 독일이 미국 쪽으로 기울지 못하도록 1948년 6월에 베를린을 봉쇄했고, 전후 전쟁의 특성은 갖추고 있으나 무기를 동원하지 않은 첫 번째 준전쟁의 유희를 연출했다.

냉전은 직접 미소 양대 군사집단을 탄생시켰다. 미국이 이끄는 “북대서양

22) 劉金質, 『冷戰史』(上), 12~13쪽.

조약 기구”는 1949년 4월 4일에 수립되었다. 이것과 대립되는 다른 하나의 국제조직도 배태되고 있었다.²³⁾ 이 조직이 배태되는 과정 중인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을 선포했는데, 세계에서 첫 번째로 중국을 승인한 국가는 소련이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같은 대국의 탄생과 “一邊倒”라는 중국의 방침은 의심할 여지없이 소련을 맹주로 한 사회주의의 역량을 강해지게 만든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소련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의 대결 구도 속에서, 이 중대한 역사적인 사건은 분명 미국의 극동전략에 대한 강력한 위협이었다. 중·소 양국 공산당 관계의 역사적인 연원으로 인해 미국은 중국을 억제하는 정책을 취했다.²⁴⁾ 毛澤東의 소련 방문의 결과 1950년 2월 14일 체결된 ‘중소우호동맹상호조약’의 체결은 명확하게 양국관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즉 “모든 필요한 조치를 공동으로 채택해서 일본 혹은 침략행위상 기타 직, 간접적으로 일본과 서로 연결된 어떤 국가의 재침략과 평화과괴를 제지하기로 한다. 일단 조약국의 일방이 일본이나 일본 동맹국가의 침략을 받아서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면, 조약국의 다른 일방은 전력을 다해서 군사 및 기타 원조를 해야 한다.” 분명히 이 조약은 군사동맹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미국을 가상의 적으로 삼았다. 중국은 사실상 어느덧 냉전의 분위기에 휩싸였다.

1950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해 냉전의 분위기를 뚜렷하게 감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 교전 쌍방은 진짜 총칼을 사용함으로써 냉전을 넘어 완전히 열전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공산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을 저지하는 양자 간에 날로 확산되어 가는 이데올로기와 이익의 대립이 부단히 발전해온 논리의 결과였다. 그래서 일부 역사학자들은 “한반도에서 분열이 없었다면 6·25전쟁은 없었고, 냉전의 대치 상황이었다면 한반도는 아마 분열의 가능성이 적었을 것”라고 말한다.²⁵⁾ “미 제국주

23) 소련이 추가 된 “바르샤바조약”의 조직은 1955년 5월 14일에 수립되었다.

24) 林利民, 『邊制中國—朝鮮戰爭與中美關係』(北京:時事出版社, 2000年), 14쪽.

의”를 타도하자는 구호는 중국에서 더 소리가 높았다. 미국은 어떤 한 곳의 공산주의도 모두 자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한 이유로 일부 서방 역사학자들은 이 전쟁을 공산주의와 비공산주의 세력 간의 충돌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이것은 틀림없이 6·25전쟁의 역사적 배경을 풍부하게 만들 것이다.

4. 결론에 대신해서 : 6·25전쟁이 중국외교에 미친 영향

중국을 한반도에 지원군을 파견함으로써 이 양대 진영 간의 국부전쟁에 밀려들었다. 이 전쟁은 중국의 외교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먼저 중·미관계부터 살펴보자.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중·미 간에는 이미 접촉이 있었다. 예를 들어, 공화국이 수립되기 전인 南京 해방 2주 후, 스틸웰의 개인비서 傅涇波가 중국공산당의 南京 外事處 주임 黃華와 접촉하고 있었다. 이때부터 黃과 스틸웰 사이에 몇 차례 접촉이 있었는데, 여기서 미국과 蔣介石의 관계와 향후 미국의 중국 승인 문제 등을 논의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미국은 바로 중국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 중국관계에서 결코 현실주의적 요소를 배제하지 않았으며, 미국이 택한 것은 조건부 승인이라는 입장이었다.²⁶⁾ 미국정부의 정책브레인 집단도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서 “승인해도 잃을 것이 없고, 승인하지 않아도 얻을 것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²⁷⁾ 이는 결코 미국이 반소나 반공이라는 본질적인 성격에 변화를 준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시기 미국의

25) 王繩祖主編, 『國際關係史』(北京:世界知識出版社, 1995年), 第8卷, 57쪽.

26) FRUS, 1949, Vol 9, pp.752~753.

27) *op. cit.*, pp.154~162.

대중국 외교 가운데는 확실히 이성적인 요소가 존재했음은 분명해 보인다. 어떤 논자들은 1949년 미국의 대 중국정책은 “전면적인 적대시와 전면적인 비적대시 사이에서 동요하고 있었다. …… 1949년 미국의 신중국에 대한 정책이 전면적인 적대시이거나 혹은 억제책이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논하고 있다.²⁸⁾

미·소 대립은 분명 6·25전쟁으로 인해서 격화되었다. 냉전 속의 이 열전은 비록 소련이 표면적으로는 참전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양대 진영으로 하여금 “너 죽고 나 살기”식의 태세를 드러내게 했다. 군비경쟁은 날로 심해졌고,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군사는 부단히 확대되었다. 이 가운데 중·미 외교관계의 회복은 물에 비친 달과 거울에 비친 꽃처럼 어렵게 되었다. 중국은 참전해서 확고하게 소련 측에 서서 미국에 대항하는 길로 빠져들었다. 국제사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소련과 친밀하고 일치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미지를 보였고, 이것은 사회주의 진영이 반석과 같이 견고하게 단결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냉전의 분위기 속에 중국의 여론도 “화약 냄새”로 가득 찼다. 미국 제국주의, 미국 자본주의는 최대의 적이 되었다. 중국 국내에서 자본주의를 겨냥한 공격은 오랫동안 호소력이 강한 구호였다. 이 테올로기 면에서 중·미 대립은 마치 불과 바람과 같은 관계였다.

중·미관계는 미국이 야기시킨 臺灣문제로 인해 더욱 복잡해졌다. 6·25전쟁 발발 후 미국은 신속하게 중국 내정에 대한 불간섭 방침을 바꾸었다. 트루먼은 1950년 6월 27일 공개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즉 공산주의 국가가 무장 공격의 수단을 사용하여 독립 국가를 정복하고, 공산당 부대가 臺灣을 점령하는 것은 “장차 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이 지역에서 합법적이고 필요한 직무를 집행하는 미국부대를 직접 위협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미국은 이미 “제7함대를 臺灣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저지하도록” 파견했다고 선포했다. 또한 臺灣은 본래 중국영토인데도, 미국은 오히려 臺灣의 지위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臺灣의

28) 林利民, 앞의 책, 91쪽.

미래 지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태평양의 안전 회복, 대일본 강화조약의 조인을 기다리거나 혹은 유엔이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바로 중국의 주권을 직접 간섭한 행위이다.

1950년대 중, 후기에 臺灣해협의 위기가 두 번 발생했다.²⁹⁾ 미국은 臺灣을 “신중국에 대해서 전복, 소란을 진행시키거나 정보활동 기지로, 또는 미국이 신중국을 저지하는 군사포위선의 최전방 보루로” 간주했다.³⁰⁾ 1950년부터 1953년 6월까지 트루먼 정부가 臺灣에 지출했거나 혹은 지출하기로 계획한 경제 및 군사 원조는 마침내 1948년 중국 내전시 미국이 蔣介石을 지원한 규모를 초과해서 미화 8억 200만 달러에 달했다.³¹⁾

미국 중의원이 1952년 3월 20일에 비준한 ‘미일안전조약’,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은 미·일이 전략동맹을 결성했다는 점을 가리킨다. 1955년 5월에 발효된 ‘미일 공동방어 원조협정’은 중국 항일의 패전국이자 10년 전 미국의 적국이었던 일본을 미국의 안전보장체계 속에 집어넣었다.³²⁾ 이때부터 중국에 대해 새로운 위협이 형성되었다. 동시에 미국은 여전히 아시아에 군사동맹 체제를 구축해서 중국을 포위권 안에 두고 있다.

세계정세의 변화, 특히 소련외교의 기세 등등, 이데올로기 문제와 국가이익의 충돌, 중·소관계의 악화 등으로 인해 중·미는 자신들의 전략배치나 국제적으로 소련에 필적하는 역량의 결성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중·미 양국은 각자의 국가안전, 냉전국면의 돌파, 臺灣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유리한 조건을 창조하고, 상호간의 접근을 도모했다. 1971년에 키신저, 1972년에는 헤이그와 닉슨이 중국을 연이어 방문했다. 2월 28일에는 중·미가 上海에서 ‘공동 케뮤니케(聯合公報)’를 발표함으로써 비로소 중·미관계 정상화의 여정이 시작되었으며, 무역, 과학기술, 문화교류가 완만하게 앞으로

29) 劉金質, 『冷戰史』(上), 441~454쪽.

30) 林利民, 앞의 책, 407쪽.

31) FRUS, 1952~1954, Vol. 14, Part.1, p. 274

32) 宋成有, 李寒梅, 『前後日本外交史1945~1994』(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95年), 73~75쪽.

나아가기 시작했다.

1978년 12월, 중·미는 같은 시각 각기 자국의 수도에서 서로 국교수립을 선포했다. 중·미는 장기간에 걸친 상호 적대상태를 끝냈으며,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회복하였고, 정치·경제·문화와 군사의 교류와 협작을 위해서 평화스러운 국제환경을 창조했다. 이는 중국이 외교 관계를 확장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래서 鄧小平은 중국이 미국과 함께 일본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한 정책은 영명한 것이며, “선견지명”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국제 전략의 원칙은 세계인민을 단결시켜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세계정치 역량을 대비시키는데 대해서, 또한 소련의 패권주의의 기도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우리들의 무모한 계획을 고립시켰으며, 우리의 국제환경을 개선시키고, 우리의 국제 위신을 높였으며, 헤아릴 수 없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³³⁾ 두말할 나위 없이 이 조치는 세계가 다양화로 가는 시각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으며, 이는 또 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촉진하는 데에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두 번째로 중·영관계를 논급해 보자. 미국 다음으로 제국주의 역할을 한 국가는 영국이다. 영국은 중국과 일련의 불평등조약을 맺었다. 영국과 기타 제국주의 국가가 19세기에 중국을 침략해서 범한 폭행은 중국인민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다. 냉전이 심화되어가는 시기에 나온 유명한 “철의 장막 발언”은 바로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처칠이 1946년 2월에 발표한 것이다. 그는 소련을 폭정 국가로 묘사하면서 소련은 인민을 “강압적으로 규제하고, 모든 민주원칙을 압박하고 위배하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독교 문명을 파괴하는 소련은 침략을 확장시키는 제국이라고 생각하고, 소련에 대해 군사력으로 강경한 정책을 택해야 한다고 호소했다.³⁴⁾ 처칠의 말투는 트루먼보다 더 강경했으며, 사실상 “철의 장막” 후의 소련에

33) 『鄧小平文選』(北京：解放軍出版社，1994年)，第2卷，160쪽.

34) 華慶昭，『從雅爾塔到板門店：美國與中，蘇，英(1945~1953)』(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2年)，90~92쪽을 보라.

대해서 호전적 자세와 냉전의 개시를 선포한 것이었다. 그의 발언은 자연스럽게 스탈린의 강렬한 비난을 받았으며, 처칠이 소련을 향해서 개전을 호소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³⁵⁾

친소적 외교 성향 때문에 중국의 입장은 말할 필요가 없었다. 게다가 경제발달 지역인 홍콩은 불평등조약이 중국에게 강요한 쓴 경험의 결과로서 계속 영국에게 점령당한 상태였다. 영국은 6·25전쟁에 참가했고, 또 국제적으로 대중국 수출금지 운동에도 참여해서 신중국 경제발전에 극히 불리한 영향을 끼쳤다. 이미 시작된 중영 수교담판은 정지 상태에 빠졌고, 양국 관계는 동결되었다. 1954년 양국 간에 대리급 외교관계가 수립되었지만, 냉전이론에 따라 영국은 당연히 “타도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중국의 대약진 운동 기간 동안 “영국을 초월하고”, “미국을 뒤 쫓는다”는 말은 매우 매혹적이기는 했으나 미실현된 구호였다. 오히려 양국은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에 이르러서 1967년 북경 주재 영국 대리대사관이 불태워지는 심한 외교관례 위반행위로 악화됐다. 일찍이 영국 내각의 부비서장을 지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엔의 영국 상주대표 등의 요직을 지냈던 존 웨스턴(Sir John Weston) 경은 이를 “반제국주의, 반수정주의”라는 이름으로 행동을 실시했다고 증언했다.³⁶⁾ “제국주의를 타도하자”는 구호에 따라 혁명이 격정적으로 일어나서 생긴 “혁명군중”은 사실상 외교관례를 위반하는 매우 비이성적인 행동이었다.

세 번째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에서의 합법적인 지위가 오랫동안 결정되지 못한 점을 논급하겠다. 사실상 중·미관계 가운데 긴장이 완화될 가능성이 존재했던 것처럼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에서의 합법적인 지위의 회복도 결코 요원하지 않은 가능성이 존재했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35) 『斯大林文選(1934~1952)』(北京：人民出版社，1985年)，497~498쪽.

36) 당시 “반제국주의 반수정주의 聯絡 驛”이라는 이름의 조직이 이 운동을 획책했다. 1967년 8월 23일자 『人民日報』를 보라：李丹慧主編，『國際冷戰史研究』，第1輯(上海：華東師範大學出版社，2004年).

에 일부 국가의 승인과 이들 국가들과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예를 들어 중국과 인도의 수교, 영국과 진행한 수교담판 등이었다. 이는 모두 세계의 일부 국가들에 대해 좋은 영향을 끼쳤는데, 자연히 유엔 회원국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역시 중국의 이러한 수교 혹은 외교 담판이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인식했다. 그래서 미국 국무원도 유엔이 신중국을 유엔회원국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부결권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였던 것이다.³⁷⁾ 1950년 말에 아시아, 아랍 등지의 13개국이 유엔에 6·25전쟁의 정전 법안을 제출했다. 1951년 1월 8일 영국 수상 애틀리도 트루먼에게 편지를 보내 영국정부는 “유엔이 중국을 침략자라고 비난, 질책하는 결의를 통과시키는데” 줄곧 반대해 왔다고 말했다.³⁸⁾

당연히 승인은 그들이 중국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동정과 평화를 회복하고자 하는 희망을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반응은 의외였는데, 그것은 미국이 한숨 돌릴 시간을 얻기 위해서일 것이며, 또 먼저 정전한 후 담판하고자 하는 모략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사실상 가능하기도 하고, 또한 중국에게 이로운 제안을 거절하였던 것이다.³⁹⁾ 6·25 전장에서 중국은 제국주의에 승리해야 한다는 극좌적 생각에서, 또 미국의 역량을 너무 낮게 평가한 반면 중국 자신의 역량에 대해서는 제국주의를 능히 패배시킬 수 있을 정도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근거하여, 중국은 많은 가능한 동맹자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오히려 1951년 1월 30일에 제출된 미국의 제안을 유엔 정치위원회에서 44표 대 7표(7표는 기권)로 통과되게 만들었다. 이 제안에 따르면, 중국은 뜻밖에도 “침략자”로 고발되었고, 미국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설령 6·25전쟁이 정전된다고 해도 그 정전협정 역시 “중국공산당의 침략이 일으킨 문제의 전부”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37) 「1950년 1월 6일 미국 국무원의 전보」, 華慶昭, 『從雅爾塔到板門店：美國與中，蘇，英(1945~1953)』(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2年)，185쪽.

38) FRUS, 1951, Vol. 7, Part. 1, *Korea and China*, Washington DC, 1983, pp. 37~38.

39) 謝顯益主編, 『中國外交史 中華人民共和國時期(1949-1979)』(河南：人民出版社，1986年)，86쪽.

것이다.⁴⁰⁾

그 후 1950년 1월, 1951년 11월과 1952년 10월 3차에 걸쳐서 미국은 유엔에서 중국의 대표권 문제가 논의하지 않고 “방치”하도록 유엔을 조종했다. 1953년에는 더욱 더 격화되어 미국은 유엔이라는 표절기계를 통해서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결의를 조작했고, 중국의 유엔에서의 대표권문제에 관한 토론을 연기시켰다.⁴¹⁾

상술한 모든 것은 신중국에게 전혀 화목하지 않은 국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이로 인해 중국으로 하여금 국제적으로 상대적 고립에 처하도록 만들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에서의 합법적 자리, 즉 회원국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 벌인 노력은 줄곧 미국 등 많은 국가들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더 심각한 것은 臺灣이 유엔에 장기간 등지를 틀고 들어앉아 있었음에 반해 중화인민공화국은 20여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엔에서 배제되었으며, 이 상황이 1971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되었다는 사실이다.

네 번째, 6·25전쟁 때문에 중국의 국가위신과 민족의 자신감이 상승되었지만 동시에 비싼 대가를 지불했다는 점이다. 전쟁이 발생했을 때 신중국에서는 온갖 일을 손보아야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국력은 매우 박약했다. 더구나 미국 등 많은 국가들의 경제봉쇄로 인해 경제상황은 상당히 열악했다. 39만명에 이르는 부상, 사망, 실종자수, 560만톤의 물자, 그 중에서 거의 2만 5,000톤의 탄약소모량은 해방전쟁 중 가장 격렬했던 3대 전역 시기의 소비량을 초과해 버렸다.⁴²⁾ 전쟁은 쌍방의 정전 담판으로 끝났다. 신중국을 바야흐로 평화건설에 힘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외교면에서 “一邊倒” 방침은 중국으로 하여금 경제건설 면에서 소련과 그 “대가정”을 구성하는 국가들에게 과도하게 의지하게 만들었다. 중국의 대외 무역 총액 중에서 중국과 소련 및 사회주의진영 국가와의 무역액은 1950년

40) 『中美關係資料匯編』, 第2輯, 上冊, 614~619쪽.

41) 『中美關係資料匯編』, 第2輯, 1167, 1193쪽; 같은 책, 下冊, 1916, 1930쪽.

42) 徐焰, 『第1次較量』, 322쪽.

32.4%에서 1953년 72%까지 상승했다. 이 가운데 대소 무역이 반을 차지했다.⁴³⁾ 오늘날 우리들이 펼치는 외교 다변화와 비교하면 대소관계라는 이러한 편협한 외교영역은 우리의 경제발전을 현저히 제약했다. 그래서 1960년대에 이르러 소련이 전문가를 철수시키고 일부 중요한 항목의 건설 원조를 중지했을 때 중국의 국가경제는 곤란한 경지에 빠지게 되었다.

다섯 번째는 6·25전쟁이 중·소관계에 미친 영향이다. 이것은 매우 방대하고 복잡한 주제이고, 이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저작과 논문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토론하지 않겠다. 다만 두 가지 점만 설명하고자 한다.

- ① 이 전쟁은 대국이면서 동시에 약소국의 지도자인 毛澤東으로 하여금 더욱 정신을 차리게 만들었다. 만약에 그가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이데올로기와 정권탈취의 틀 안에 사로잡혔다면 소련 외교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환상이나 심지어 미신을 가졌을 것이고, 따라서 모종의 盲區에 빠졌을 것이다. 그런데 6·25전쟁 후 소련에 대한 毛澤東의 인식은 “연합함대” 문제에서 보였던 것처럼 훨씬 더 이성적인 양상을 띠었다. 마침내 그는 중화인민공화국과 공화국 영토의 완정, 국제적인 명망, 중국민족의 존엄과 중국공산당에 대해 책임져야 했다.
- ② 그러나 毛澤東은 전술한 盲區에서 즉각 이탈하지는 못했다. 본래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이미 코민테른의 세계프롤레타리아혁명과 계급투쟁이론에 관한 짝을 포기하는 조짐이 나타났다. 하지만 毛澤東은 그 후의 외교관계를 처리할 때 이데올로기적 요소, 특히 “세계혁명”이라는 전략이 여전히 크게 작용했다.

1956년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흐루시초프는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표대회에서 스탈린이 총서기직을 맡고 있던 기간 소련의 국가 정치와 소

43) 『1949-1952年中華人民共和國經濟檔案資料選編』, (對外貿易卷)(北京:經濟管理出版社, 1994年), 499~500쪽; 『當代中國的對外貿易』(北京:當代中國出版社, 1992年), (上), 19쪽.

련공산당 내에 나타난 심각한 개인숭배 현상에 대해 작심하고 보고했다. 청중은 소련공산당 대표대회의 대표들로 국한했으며, 전체 소련국민들에게 공포한 게 아니었다. 그래서 그것은 “비밀보고”라고 불린다.

이 보고는 스탈린이 당내 민주를 파괴하고, 무고한 이들을 너무 죽여 국가정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예들을 열거했다. 그 뿐만 아니라 1941년 6월 “돌연 닥쳐 온” 독일의 대소련 공격 초기 소련을 극히 위협하고 피동적인 지경에 처하게 만든 사실도 직접 지적했다. 사실상 보고에서 언급된 엄청난 나쁜 현상들은 중국이나 많은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에서 행해지는 비정당정치의 일당 독재정치를 떠올리게 만든다.

그 후, 소련의 외교방침 역시 공산주의 혁명수출로 제국주의를 타파하고자 한 기존의 강경한 이념을 점차 수정하게 되었다. 1959년 흐루시초프는 능동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나섰으며, 다른 정치제도를 가진 국가들과의 평화공존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이미 6·25전쟁이 끝난 지 6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런데도 毛澤東은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즉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투쟁은 너 죽고 나 살지는 식의 투쟁이다. 이 투쟁을 소홀히 하고, 심지어 평화공존을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이제 두 세계의 투쟁을 언급하지 않는다. 아주 위험하다.”⁴⁴⁾

중국의 외교업무를 이데올로기예다 단단히 고정시켜 놓는 방식은 계속 이어졌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도 毛澤東은 계속 소련의 외교정책을 비판했다. 중국의 대외정책은 소련 및 기타 사회주의국가들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마디로 소련 및 기타 사회주의국가들이 미국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자신들은 미 제국주의를 고립시키거나 타격을 입히고, 미국 공포증을 없애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미 제국주의와 굳건히 투쟁하도록 하는데 국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국주의와 모든 반동파에 대해 “무서워하면 할수록 그들은 (우리들에 대한) 공격이 더욱 심해질 것이

44) 이 같은 관점은 毛澤東이 여러 곳에서 드러낸 바 있다. 예컨대 『周恩來軍事活動紀事』(北京:中央文獻出版社, 2000年), 下卷, 494, 504, 510, 514~515, 526, 540쪽을 보라.

고, (우리들의) 공격이 강경하면 할수록 그들은 방어로 전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⁴⁵⁾

소련이 자국의 전문가들을 중국에서 철수시키자 소련에 대한 毛澤東의 불만은 더욱 강렬해졌다. 그는 소련이 이 조치를 취하면 필히 수정주의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60년 중국은 대규모 반수정주의운동을 조직해 계속적으로 레닌의 계급투쟁과 세계혁명 이론을 선전했다. 중공중앙 기관지인 '紅旗'잡지와 '인민일보'는 잇달아 "레닌주의 만세", "위대한 레닌의 길을 따라 전진하자", '레닌의 혁명 기치하에 단결하자' 등의 중요한 글을 실었다.⁴⁶⁾ 毛澤東의 자작시 '咏梅' 중 "천길 낭떠러지에 달린 얼음은 두껍디두껍건만 꽃가지만 예쁘구나"라는 시구는 바로 그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낸 탄성이다. 중국은 소련 수정주의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단지 마르크스 레닌주의만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다.

1962년 중공 제8계 10중전회가 거행됐다. 毛澤東은 이 대회에서 계급투쟁 이념의 강화와 관련해 계급투쟁 사상을 "날마다 말하고, 해마다 말하고, 달마다 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것은 그 후 한동안 지도사상이 됐다. 그렇지만 국제 면에서 毛澤東 등 중공 지도자들은 국제정세, 특히 미국의 힘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제국주의와 모든 반동파는 모두 종이호랑이다. "적은 하루하루 썩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날로 좋아지고 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세계혁명에서 신속하게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충만케 했다. 이 회의에서 周恩來는 자신이 넘쳐나듯 이렇게 말했다. "마르크스주의는 진리다. 세계혁명의 중심은 모스크바에서 북경으로 옮겨왔다."⁴⁷⁾

이렇듯 중국은 반제국주의와 반수정주의라는 양면의 큰 깃발을 올렸다. 毛澤東은 소련이 수정주의가 되어버렸다고 인식했다. 즉 모든 전쟁과 혁명을 반대하는 흐루시초프의 계급투쟁 말살은 대립되는 계급간, 특히 노동자

45) 『張聞天年譜』(北京: 中共黨史出版社, 2000年), 下卷, 1098쪽.

46) 『紅旗』, 1960年第8期와 『人民日報』, 1960年4月22日, 23日자를 보라.

47) 『周恩來在八屆十中全會講話上的講話』, 『冷戰與中國的周邊關係』, 386쪽에서 재인용.

계급과 자본가계급 간에는 너 죽고 나살자는 식이 되어선 안 된다고 하면서 담판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흐루시초프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피압박민족과 식민통치자 간에 전쟁을 해서는 안 되며, 서로 평화공존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생각들은 모두 전형적인 수정주의 이론이라는 판단이었다.

6·25전쟁은 이미 중국의 경제발전과 평화건설에 적지 않은 손실을 가져다주었다. 중국은 건설에 종사할 수 있는 평화적 국제환경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毛澤東은 여전히 "평화공존은 없다. 최소한 우리에게서는 제국주의와는 평화공존이 없고, 단지 냉전공존이 있을 뿐이다"라고 했다.⁴⁸⁾ 말하자면 미 제국주의와 평화공존이 불가능하니 중국은 그들을 소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모두 반제이며, 먼저 미 제국주의에 반대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계급압박, 민족압박을 반대하는 각국 인민들의 계급투쟁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공산당이냐?"라는 것이었다.⁴⁹⁾

1950년 당시 중국이 6·25전쟁을 지지한 것처럼 중국은 계속 '세계혁명'의 길을 걸었다. 1955년 반둥회의에서 중국은 몇몇 국가들과 함께 평화공존 5원칙을 제기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특히 항미원조전쟁이 끝난 시점부터 1966년 중국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 시기까지 10년 동안 중국은 중공이 과거 코민테른 시기 받아들인 '세계혁명' 이념의 영향을 받아 평화공존 5원칙을 전면적으로 관철시킬 수 없었다.

여섯 째, 6·25전쟁은 중국과 그 주변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1965년 林彪는 '인민전쟁 승리만세'라는 글을 발표했는데, 전 세계를 향해 중국은 '세계혁명' 전략을 밀어부칠 것이라고 선언했다.⁵⁰⁾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강

48) 『毛澤東與朝鮮勞動黨總書記金日成的談話』(1960年5月21日): 『毛澤東與丹麥共產黨主席耶爾森的談話』(1960年5月28日), 위 주와 같은 책, 385쪽에서 재인용.

49) 『毛澤東接見委內瑞拉客人的談話』(1961年12月5日), 위 주와 같은 책, 386쪽에서 재인용.

50) 『人民日報』, 1965年9月3日.

조했다. 중국혁명은 농촌을 통해 도시를 포위해 승리할 것이다. 이 길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게 보편적 지도의의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세계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지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승리의 시대로 나아가는 시대에 있기 때문이다.” 세계정치의 모양새도 “일종의 농촌이 도시를 포위하는 형세”를 보였다. 중국인민혁명전쟁의 승리는 제국주의의 동방전선에 손상을 입혔고, 세계의 역학을 크게 바꾸었으며, 세계 각국 인민들의 혁명운동을 촉진시켰다. 여기에서 아시아,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민족해방운동은 하나의 새로운 역사시기로 들어갔다.

상기 林彪의 글은 미국과 소련을 비판하는 선명한 기치를 올렸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오늘날 미 제국주의는 세계적 범위에서 과거 일본제국주의가 중국과 아시아에서 했던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인민전쟁이라는 무기를 장악, 운용해 미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에게 대항하는 것은 많은 국가의 인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게 되었다. 미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인민전쟁의 혁명적 불길을 끌려고 기도하고 있다. 흐루시초프 수정주의자 역시 전염병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인민전쟁을 무서워하며, 인민전쟁을 모독하고 있다. 그들은 서로 결탁해 인민전쟁을 저해, 파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인민전쟁이 위대한 승리를 얻은 역사적 경험을 다시금 뜨겁게 하고, 毛澤東 동지가 제기한 인민전쟁의 이념을 다시금 뜨겁게 한다는 것은 특별히 중대한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분명 중국은 마치 세계혁명의 중심이 된 것처럼 보였는데, 정의를 위해 뒤돌아보지 않고 나아가듯이 반제투쟁의 최전선에 서 있어야 했다. 따라서 중국은 아시아,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민족들의 반제, 반식민지 민족해방투쟁을 지원하고, 전세계 반제통일전선을 형성해야 했다.

세계적 범위에서 중국 외교는 늘 항미원조전쟁 기간의 적이었던 미국과 이데올로기적으로 적수였던 소련과 마주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1960년대 초기 인도차이나 사태를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지정학적 측면에

서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개입을 방지하려고 했다. 중국이 받게 될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베트남전쟁은 이미 발발해 1960년 라오스 내로 파급됐다. 1961년 케네디는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바로 그에 대해 군사적으로 간섭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3월 미 제7함대를 중국 남해로 보냈다. “일본 오키나와와 태국 주둔 미군은 전쟁상태로 들어간다고 선포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은 남부 베트남에서 ‘특종전쟁’을 발동했다. 미군은 직접 전쟁 참전을 개시했다.”⁵¹⁾ 이것은 “중국의 안전에 위협이 되며”, 직접 위협을 받는 것은 베트남이지만, “간접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중국외교부는 인식했다.⁵²⁾ 이 시기는 바로 중국 경제가 바닥에서 헤매고 있던 때이며, 자연재해와 천재지변이 일으킨 경제곤란의 시기였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1962년 5월, 미군이 태국으로 진입하자 중국의 ‘人民日報’는 이를 강렬하게 비판하는 글을 발표하면서 중국인민들에게 “미국 침략자를 동남아에서 쫓아내자!”고 호소했다.⁵³⁾ 이 해에 중국-인도 국경에서도 긴장상황이 나타났다. 나중에 중국은 국가영토의 완정을 지키기 위해 하는 수 없이 자위적인 반격전을 전개했다.⁵⁴⁾

이러한 상황임에도 중국은 여전히 “공산주의세계가 실현될 때까지 세계 각국 인민들의 혁명운동을 지원하겠다”는 노선을 견지했다.⁵⁵⁾

이 과정에서 중공 상층부에서는 당연히 王稼祥처럼 냉정을 찾자는 소리를 낸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즉 진지하게 외교정책을 전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잠시뿐이었고, 극소수 사람들의

51) 『冷戰與中國的周邊關係』, 583쪽.

52) 韓念龍主編, 『當代中國外交』(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7년), 159쪽.

53) 『人民日報』, 1962년 5월 19일.

54) 자세한 내용은 「印度外交政策, 大國關係與1962年中印邊界衝突」, 『冷戰與中國的周邊關係』, 487~556쪽을 참조하라.

55) 劉少奇, 「在擴大的中央工作會議上的講話」(1962년 1월 27일),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 第15冊, 61쪽.

의견은 당내 정책결정 수준의 상층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거나 혹은 외교국면을 바꾸지도 못했다.⁵⁶⁾

이 같은 외교방침은 복잡한 국제, 국내 정세하에서 연속되었다. 국내에서는 1958년의 대약진이 불러일으킨 심각한 경제퇴퇴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열악하고 부족했던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와 정치에 더욱 심한 충격을 받게 만들었다. 그 후 3년 동안의 경제 곤란 시기는 벌써 우리가 경중을 올린 바 있다. 즉 우리 자신의 전략방침을 재고해야 한다고 일깨웠던 것인데, 국내에 자본주의의 소멸이 가능하고, 국제적으로는 세계프롤레타리아 계급혁명의 완수가 가능한지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극좌 사조는 억제되지 않았다.

1962년에 이어 毛澤東은 중공 제8계 10중전회에서 국제적인 측면에서 흐루시초프의 “三和一少”⁵⁷⁾ 관점을 비판했고, 국내적으로는 “三風”(黑暗風, 單干風, 翻案風) 계급투쟁이 시든다는 생각을 비판했다. 이로 인해 국내외의 ‘수정주의’는 중국 국내외에서 불구대천의 적이 되어 버렸다. 수년 후 시작된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은 국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자본주의를 공격했고, 국제적으로는 “풍경은 내가 있는 이곳이 최고 좋다”는 毛澤東의 시구처럼 되어 버렸다. 중국만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국가와 정당을 견지한 것이다.

1950년대 말기에서 1960년대 말기 동안 “중국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처리하면서 미소라는 두 개의 초강대국 및 그 동맹국들로부터 비롯된 압력에 맞닥뜨렸다. 따라서 이 단계의 중국과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는 보편적으로 좋지 않았다. 중국의 주변 환경은 매우 험악했다.” 1966년에 전중국을 석권한, 毛澤東이 발동한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이 발발했다. 이 같은 극

56) 牛軍, 『1962: 中國外交政策‘左轉’的前夜』, 『冷戰與中國的周邊關係』, 583, 586~588쪽을 참조하라.

57) 제국주의, 각국의 반동파, 현대 수정주의와 결탁하여 각국 인민의 혁명투쟁을 약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좌적 외교노선은 극치로 치달았다. 중·소관계가 더욱 악화되었고, 과거 중국의 최대 동맹국이었던 소련은 적수가 되어 버렸다. 중소국경의 동쪽에서는 “열전”-珍寶島 무장충돌-이 발생했다. 서쪽 국경지역 新疆에서는 몇 만 명이나 되는 많은 중국인들이 국경을 넘어 소련으로 건너 가버렸다.⁵⁸⁾ “九評”⁵⁹⁾과 중소논쟁이 전해온 것은 여전히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소리였다.

중·미관계는 미국이 제국주의의 우두머리로서 타도되어야 할 대열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악화되었다. 중국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아주 많은 중국 주재 대사관들이 충격을 받았다. 반면 중국은 미·소 양대 초강대국에 맞닥뜨렸을 뿐만 아니라 극좌적인 정치사조는 일정한 정도로 중국과 원래 우호적이었거나 혹은 중립적인 국가들과의 관계까지 손상시켰다. “주변 국가에 적을 많이 만들었고, 중국과 많은 국가들과의 관계가 긴장되었는데, 신뢰할만한 친구가 거의 없었다.”⁶⁰⁾

기타 폴란드 및 헝가리 사건, 알바니아 문제를 둘러싸고 소련과 분열된 이른바 동유럽 사태 등에 대한 대처는 1919년 세계 소비에트를 건립하고, 세계 프롤레타리아혁명을 진행하라고 한 코민테른의 호소를 생각나게 한다. 그 근원을 규명해보면 바로 세계정세, 즉 다른 시기 줄곧 자신의 힘이나 혹은 사회주의의 역량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는 점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항미원조전쟁 후 중·미가 수교하기까지 2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앞 세기 1970년대 초 시작된 중·미 접촉은 중국이 세계정세에 대해 비교적 이성을 회복한 듯한 분석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국도 자국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해 중국과 적대상태를 종식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58) 李丹慧, 『對新疆蘇聯僑民問題的歷史考察』, 『冷戰與中國的周邊關係』, 16~66쪽.

59)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9차례에 걸친 반박문, 특히 9 번째의 반박문인 ‘호루시초프의 가짜 공산주의와 세계사에 있어서의 교훈에 대하여’라는 것을 가리킨다.

60) 張小明, 『冷戰時期中國與周邊國家關係的特點』, 『冷戰與中國的周邊關係』, 12쪽.

미국은 중국을 제압할 수가 없었다. 오늘날 중국의 발전은 중국이 중공 중앙위원회 제11계 3중전회 이후 국내에서 경제건설을 중점 과제로 만듦과 동시에 외교방침에 대한 조정이 정확해졌다. 그것은 우리가 좋은 국제환경을 얻는데 중요한 작용을 했다는 점을 설명해준다. 중국은 세계정세에 대해 이성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고, 중국외교도 이성적이며 지혜로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국외교에 대한 6·25전쟁의 영향은 매우 큰 주제다. 중국의 출병은 신중국의 위신을 높게 끌어올렸다. 한편으로 이 때문에 이 신생 정권에게 내정, 경제건설과 외교 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겨 주기도 했다. 우리들은 臺灣해협 양안의 중화민족이든, 또는 “휴전선” 양측의 북한인과 한국인이든 평화, 민족단결은 모두 강력한 응집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느낀다.

(원고투고일 : 2007. 9. 3, 심사완료일 : 2007. 11. 16)

주제어 : 6·25전쟁, 중국외교정책, 마오쩌둥, 코민테른

<ABSTRACT>

The Korean War's Impact on Chinese Foreign Diplomacy

Li, Yu-zhen

In the year 1950, when the fire of the Korean War was almost to the *Yalu* River, which marked the border of the young Peoples Republic of China(PCR), China decided send its volunteers army to, join with the North Koreans to fight with the UN troops. The article gives an analyse of the motive of the decision in the ideological term-to promote the proletarian revolution in Korea and to unite the Korean Peninsula on the base of the Soviet principals. PCR, the leaders of the newly established country PCR in particular *Mao Tsedong* was proud of the victory of CCP and wanted to help the North Korea to do the same. Since 1922 the CPC became a section of the Comintern. which decided and tried to carry out the Russian strategy of the communist revolution over the whole world. PCR accepted this strategy and followed it during long time till 1978.

The evil of the dogma of the “world revolution” stimulated the PCR to take the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 and it given strong influence on the diplomacy of PCR. Actually, there was not the winner of the War. The U.S. casualties were placed at over 54,000 dead and 103,000 wounded, while Chinese and Korean casualties were each many times as high.

PCR had serious consequence after the War both in the inner affairs and in the foreign relationship. For PCR itself, the participation of the Korean War directly delayed the solution of the Taiwan case, delayed the resume the lawful status of the PCR in UN, As to the foreign relationship of the

RRC, the participation of it in the Korean War led the country to a isolated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affairs. PRC lost the good chance for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and delayed it on about 20 years. The article enumerated facts(such as the Sino-American relations, the relations with the neighbouring countries (India, Sino-Soviet relations and so on.) to explain the point of view.

Key Words : The Korean War, Chinese Foreign Policy, *Mao Tsedong*, Comintern